

## 코로나19 시대의 웨슬리적 기독교윤리

유경동\*

**【주제어】** 코로나19, 웨슬리적 기독교윤리, 공공신학, 과학과 종교, 이성과 신앙

**【요약문】**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하 한글로 “코로나19”로 통일함)”로 말미암아 최근 기독교적 세계관에 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정부의 공중보건정책으로 대다수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으로써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형식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방역을 위하여 공중집회를 제한하는 정부의 시책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신장하는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만 하는 교회의 책무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신앙과 이성의 적절한 조화에 대하여

---

\*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수, 기독교윤리학

성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에게서 나타나는 사상을 통하여 웨슬리가 당시 질병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각각 웨슬리가 강조한 이성의 역할과 질병에 대한 전인적 치유에 대한 그의 관점, 그리고 이러한 고찰에 근거한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 공공신학의 책무에 관한 것이다. 결론으로 필자는 코로나19 시대의 이성은 철저하게 과학(science)과 사실(fact)에 근거하여 코로나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지만, 이러한 과학의 시대에 웨슬리적 기독교윤리는 과학의 결과물에 종속되지 말고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음에 근거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증시하는 사명이 있음을 강조하고자 한다.

## I. 서론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2019(Coronavirus disease 2019, Covid-19, 이하 한글로 “코로나19”로 통일함)”로 말미암아 최근 기독교적 세계관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는 정부의 공중보건정책으로 대다수 교회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게 됨으로써 교회 건물에 모여서 드리는 전통적인 예배형식에 큰 변화가 있게 되었다. 따라서 예배를 통하여 믿음의 가치를 강조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방역을 위하여 공중집회를 제한하는 정부의 시책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회의 질서를 신장하는 교회의 공적 책임에 대한 부분 또한 간과할 수 없기에 정부의 방침을 따라야만 하는 교회의 책무도 간과할 수 없

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중보건과 교회의 종교적 행위는 자칫 이성과 신앙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해석되기도 하였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하여 교회가 겪은 갈등은 신앙의 자유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배가 제한적인 조치로 위축되는 문제에 있었다고 본다. 그러나 인간과 인간 사이의 접촉을 통하여 전염되는 질병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예배 또한 집회 중지의 권고사항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신앙과 이성의 갈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과학(science)과 사실(fact)에 근거한 의학적 접근방식에 반하여 하나님에 대한 믿음(faith)을 강조하여 예배를 지속하는 것이 자칫 사회적 분열을 일으키고 반지성으로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이 논문에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신앙과 이성의 적절한 조화에 대하여 성찰하고자 한다. 특히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에게서 나타나는 사상을 통하여 웨슬리가 당시 질병에 대하여 어떤 관점을 가졌는지 살펴보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필자는 이 논문을 통하여 세 가지 소주제를 통하여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 그 내용은 각각 웨슬리가 강조한 이성의 역할과 질병에 대한 전인적 치유에 대한 그의 관점, 그리고 이러한 고찰에 근거한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의 역할과 지성의 책무에 관한 것이다. 이러한 논지를 통하여 기독교의 공공신학의 책무에 대하여 강조하여 보도록 하겠다.

## II. 웨슬리의 이성에 대한 관점

알버트 아우틀러(Albert Outler)는 웨슬리 신학에 나타나는 중요한 사변

형원리(Wesleyan Quadrilateral)를 “성서, 교회전통, 이성, 그리고 개인 체험(Scripture, Church Tradition, Reason, and Personal Experience)”이라고 정리한 바 있다.<sup>1)</sup> 아우틀러 자신도 지나치게 교조적인 “성서주의나 전통주의, 이성주의, 또는 경험주의”로 비쳐질 수 있는 신학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신학이 “비판적이면서도 신앙적이며”, “과거 기독교의 지혜에 밝으며”, “토론자의 무기 그 이상의 이론적 분석을 위한 여지가 있으며”, 그리고 생동적인 “내적 믿음”의 조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sup>2)</sup>

아우틀러의 기대처럼, 웨슬리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면서도 특히 전통과 체험, 그리고 이성을 조화하려고 노력하였으며, 그의 시대와 간격이 있는 현대에서도 웨슬러의 사변형적 사고는 매우 중요하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웨슬러가 이해한 이성에 대한 관점을 보면, “코로나19”에서 비치는 신앙과 이성의 갈등을 해소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본다. 웨슬러는 비록 그의 설교에서는 가능한 한 복잡한 이성적 추론을 생략하고 평이하게 설교한다고 강조하면서도<sup>3)</sup> “편견 없이 고려되어야 할 이성의 경우(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sup>4)</sup>라는 설교에서 신앙에 있어서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고린도 전서 14장 20절,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개역 개정판)”를 본문으로

1) Albert C. Outler, “The Wesleyan Quadrilateral-in John Wesle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0, no. 1 (Spring 1985), 16-17. [https://wtsociety.com/files/wts\\_journal/1985-wtj-20-1.pdf](https://wtsociety.com/files/wts_journal/1985-wtj-20-1.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2) 위의 책, 17.

3) John Wesley, “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14,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s://ccel.org/ccel/wesley/sermons>.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이 설교는 인터넷 사이트 순서로 70번째 설교이며, 1872년 판 text로 소개되고 있다. 이하 페이지 명기는 사이트의 웨슬러 설교집 순서에 따른 pdf 페이지를 기입함을 밝힌다.

4) 위의 책, 693.

하여 웨슬리는 인간 본성을 간파하고 “만일 이성이 인간에 반(反)한다면, 인간은 늘 이성에 반(反)할 것이다.”<sup>5)</sup>라고 강조한다. 웨슬리에게 있어서 이성은 보편적인 것으로써, 크리스천이나 비기독교인에게 필요한 것이며, 당시 영국의 열광주의자에게 나타나는 반이성적 경향이나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여겨 종교적 가치를 폄하하는 양 극단에 대하여 경계하였다.<sup>6)</sup>

웨슬리는 이성을 평가절하하거나 과도하게 평가하는 양극단을 적절하게 조화할 수 있는 중간지점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진지하게 질문하는데, 존 로크(John Locke)의 “인간의 이해(human understanding)”라는 수필을 예로 들면서, 이성의 양 극단적 문제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이지 못하였다고 지적한다.<sup>7)</sup> 반면, 웨슬리는 왓츠(Watts) 박사가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한 이론에 있어서 매우 적절한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지적하면서도 이성을 과소평가하거나 과대평가하게 되는 문제에 대하여서는 마찬가지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이해하고 있다.<sup>8)</sup> 웨슬리는 이성에 대한 정의(definition)가 중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제로 그의 설교문 총 141편에서 영어 “reason(이성, 이치)”의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의 형태를 본문에서 총 600여 회 사용한다.<sup>9)</sup>

5) 위의 책, 693.

6) 위의 책, 693-694.

7) 위의 책, 694. 참고로 로크(Locke)의 책은 다음을 참고하십시오. John Locke, *An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 (Jonathan Bennett, 2017), <https://www.earlymoderntexts.com/assets/pdfs/locke1690book1.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웨슬리는 존 로크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다.

8) 웨슬리가 이해한 왓츠(Watts) 박사의 논지에 대한 분석은 웨슬리의 설교, “그리스도 오심의 끝(The End of Christ’s Coming)”에 소개되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왓츠 박사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인성(the glorious humanity of Christ)”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630. 참고로 “편견 없이 고려되어야 할 이성의 경우(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설교에서 왓츠 박사의 ‘이성’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는 내용은 없다.

9) 필자가 인용한 사이트의 검색창에서 “reason”을 입력하였을 때, 문장에 사용한 빈도가 626 회로 나타났는데, 소재목의 단어가 목차와 본문, 그리고 색인에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서 600여 회 안팎으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웨슬리는 이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첫째, “이성은 주장을 위하여 사용된다.”<sup>10)</sup> 웨슬리는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sup>11)</sup>의 경우처럼, 무엇을 주장하기 위하여서는 이성이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여기서 어떤 주장을 위한 이성의 역할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상호 연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sup>12)</sup>

둘째, 웨슬리는 이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 다른 예로서 “이해(understanding)”를 예로 들었는데, 이 경우 이성은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파악하며, 그 예는 각각 ‘납득(apprehension)’, ‘판단(judgement)’, 그리고 ‘소통(discourse)’을 들었다.<sup>13)</sup> 웨슬리에 따르면 납득은 이해과정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며, 판단은 동의 여부에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소통은 어떤 판단을 전달하는 과정에 따르는 “마음의 행동이나 전개”라고 보았다.<sup>14)</sup>

웨슬리는 위와 같이 간략하게 이성(reason)의 뜻을 정의한 다음에 큰 틀에서 인간의 이성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나누어서 설명하는데, 먼저 이성이 할 수 있는 것으로서 웨슬리는 자연법적인 관점에서 이성은 매우 중요하여 노동이나 사무, 농사, 정교한 수작업, 악기, 예술, 해양, 법, 의료, 과학, 자연철학, 법철학, 그리고 국가의 통치자들이나 평민에게도 필요한 지적 능력이라고 설명한다.<sup>15)</sup>

웨슬리는 위와 같은 이성의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종교의 영역에서 이성의 역할에 대하여 논지를 전개한다. 이성은 보다 높

10) John Wesley, “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694.

11) 웨슬리는 성경본문을 인용하지 않고, “Give me a *reason* for your assertion.”이라는 문구가 이사야서에 있다고 소개한다. 필자의 생각으로는 다음의 문장이라고 본다. “(나 여호와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사 41:21)”

12) John Wesley, “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694.

13) 위의 책, 694-695.

14) 위의 책, 695.

15) 위의 책, 695.

은 차원의 문제들을 파악하기는 그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여 주어진 예언자나 사도들에게 계시된 말씀들을 이해하는 데에 그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sup>16)</sup> 웨슬리는 토마스 아퀴나스와 같은 자연법적인 전통에서 섬세하게 이성의 역할을 논리적으로 전개하지는 않지만, 성령의 도우심에 의하여 이성으로 복음을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성령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신다면, 성경, 회개, 믿음, 구원, 중생, 천국, 거룩함으로 이 땅에서 백성으로 양심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설명한다.<sup>17)</sup>

웨슬리는 이성을 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 그의 논지를 전개하는데, 첫째, 이성은 믿음을 만들지 못하며, 둘째, 이성만으로 소망도 만들지 못하며, 그리고 셋째, 비록 이성은 계몽적인 관점에서 그 능력이 신장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sup>18)</sup> 웨슬리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나 확신”으로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에 대하여 관여한다고 본다.<sup>19)</sup>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기뻐할 수 있고,” “장차 올 세상의 능력을 맛보고,”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의 자리에 앉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이다.<sup>20)</sup> 웨슬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

16) 위의 책, 695.

17) 위의 책, 696.

18) 위의 책, 697-701.

19) 위의 책, 696.

20) 위의 책, 698. 웨슬리는 위 성경 본문의 출처를 인용하지 않고 있다. 필자가 보충하여 인용하자면 다음과 같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로마서 5:2),”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히브리서 6:5),”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에베소서 2:6),”

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에 드러난 소망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기에 이성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 소망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한다.<sup>21)</sup>

웨슬리는 계몽을 통한 이성의 교화 가능성에서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는 없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 아들 주신 그 진리를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22)</sup>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다.<sup>23)</sup>

웨슬리가 강조하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중요한 점은 이성이 하나님의 사랑에 관여할 수 없기에 이웃에 대한 사랑도 이성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지적한 부분이다.<sup>24)</sup> “우리 이웃을 향한 신실하고 변함없는 선한 의지는 결코 그 어떤 샘물과 같은 곳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창조주에 대한 감사로부터 나오는 것이다.”<sup>25)</sup> 같은 맥락에서 이웃 사랑과 같은 덕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이성이 사랑과 같은 덕을 만들어 낼 수 없다고 웨슬리는 이해하였다.<sup>26)</sup> 따라서 웨슬리는 이성이 믿음과 소망, 사랑과 덕과 같은 것을 만들어 낼 수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행복도 이성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한다.<sup>27)</sup>

---

21) 위의 책, 698. 웨슬리가 인용한 성경 본문은 “벤전 1:3-4.”라고 본다.

22) 위의 책, 699.

23) 위의 책, 699. 웨슬리가 인용한 본문은 필자가 확인하여 볼 때 “롬 5:5”와 “요한1서 4:19”이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롬 5:5).”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요한1서 4:19).”

24) 위의 책, 699.

25) 위의 책, 699-700.

26) 위의 책, 700.

27) 위의 책, 700.



웨슬리는 믿음과 이성의 조화라는 맥락에서 종교 기저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믿음과 실천” 또는 “내적 혹은 외적 기록”을 이루는데, 이성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용된다면 유용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될 때 종교도 “합리적인 봉사”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보았다.<sup>28)</sup> 웨슬리는 “편견 없이 고려되어야 할 이성의 경우(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 제목의 설교를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마무리한다.

이성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게 하십시오. 이성이 적용될 수 있는 데까지 적용하세요. 그러나 동시에 이성은 전적으로 믿음이나 소망 또는 사랑, 그리고 실제적인 덕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본질적 행복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저 높은 곳, 모든 육체의 영을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앙망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구하고 받지만, 자신의 획득물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sup>29)</sup>

지금까지 필자는 웨슬리의 설교 “편견 없이 고려되어야 할 이성의 경우(The case of reason impartially considered)”에서 웨슬리가 신앙과 이성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지 살펴보았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전적인 예는 웨슬리 시대의 질병에 대한 그의 이성적 사고를 살펴보면 잘 나타난다. 웨슬리는 설교에서 물론 의학적 치유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믿음이 병을 치유할 수 있는 참된 치료제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한다.<sup>30)</sup> 하나님은 위대한 의사로서 병자들을 치료하시며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시는 분이시다.<sup>31)</sup>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이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는 복음이 그 치료의 본질이 된다.<sup>32)</sup> 비록 죄

28) 위의 책, 700.

29) 위의 책, 700.

30) John Wesley, “The Circumcision of the Heart,”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178.

31) John Wesley, “Original Sin,”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466.

인으로서 인간이 이러한 복음을 받아들이기에는 마치 쓴 약과 같지만, 영원한 안식과 복락에 들어가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웨슬리는 일관적으로 강조한다.<sup>32)</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웨슬리는 당시 만연한 질병을 치유하는 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학에 관하여 많은 공부를 하였으며, 당시 문맹자들을 포함하여 교육이 낮은 대중을 위하여 다음 장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이라는 소책자도 출판하여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다. 이러한 웨슬리의 노력은 교회가 문자주의나 교조주의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오히려 이성을 통한 교육과 계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졌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제 다음 장에서 웨슬리의 의학에 관한 관점을 살펴보자.

### III. 웨슬리의 ‘기초의학(Primitive Physic)’

앞 장에서 필자는 웨슬리의 설교에 나타나는 신앙과 이성의 조화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웨슬리는 이성의 역할에 대하여 그 중요성을 간과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이성의 한계에 대하여 분명히 직시하고, 매 순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구도자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웨슬리가 자신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한 그의 태도에 잘 나타나 있다. 웨슬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몸을 매우 소중하게 관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 그는 1년에 4천 마일이나 되는 선교여행을 하면서도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고 늘

32) John Wesley, “The Wilderness State,”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483.

33) John Wesley, “Self-denial,”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502.

정신건강에 주의하였으며, 새벽 4시에 규칙적으로 기상하고, 밤을 새우는 일이 없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잠을 깊이 잘 수 있었다고 회고하면서, 평생 두 번의 고열과 두 번의 결핵 외에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건강할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sup>34)</sup> 웨슬리는 특히 수면의 중요성에 대하여서도 그의 설교에서 강조하는데, 건강한 성인 남성의 경우 6-7시간, 그리고 여성의 경우는 7-8시간 자는 것이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자신이 수십 년 동안 숙면을 취하게 된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다.<sup>35)</sup>

웨슬리는 당 시대에 의사와 같은 전문인은 아니었지만, 대중들이 육체의 질병으로부터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하여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기초의학(primitive physics)”<sup>36)</sup>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하였다. 웨슬리는 총 288종의 치료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하는 “기초의학”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본래의 인간은 흠으로 만들어진 영과 육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기 때문에 “불멸”의 축복에 거함으로써 의학과 같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모든 자연 만물들과 평화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다고 성서적 관점을 피력한다.<sup>37)</sup>

34) John Wesley, “Wesley Criticizes the Scotch Universities” *The Journal of John Wesley*, 1776년 5월 27(월), 390. 참고로 필자가 인용하는 영문판 웨슬리 저널은 1951년 Moody Press에서 출판하였으며, 파커(Percy Livingstone Parker)가 “웨슬리 저널” 원본을 요약한 것이며, 휴스(Hugh Price Hughes)는 이 책을 소개하면서 웨슬리도 처음에 출판하였을 때도 요약형태였기 때문에 그 내용의 핵심적인 것을 간략하게 다시 요약하여 출판하는 것도 독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소제목은 영어 편집자가 임의로 붙인 인용임을 밝힌다.

35) John Wesley, “The More Excellent Way,”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860.

36) 웨슬리의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의 영문 원본은 1847년 4판을 참고하였음을 밝힌다. 웨슬리가 288종의 내용에 대한 치료방법을 소개한 것은 1847년 판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참고로 기초의학을 부연 설명하기 위한 다른 소제목은 “대다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쉽고 자연적인 방법(Easy and Natural Method of Curing Most Disease)”이다. 이 4판에는 1747년 6월 11일 자 웨슬리의 서문과 1755년 10월 16일, 1760년 11월 10일, 1780년 4월 20일 자로 된 추신이 붙어있다. John Wesley, “Primitive physic or, an easy and natural method of curing most diseases,” [https://thornber.net/medicine/html/primitive\\_printable.pdf](https://thornber.net/medicine/html/primitive_printable.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37) John Wesley, *Primitive Physic*, i. 이하 인용 페이지는 앞의 인터넷 사이트의 1747년 4판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이후 인간은 타락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사악함과 고통, 병과 죽음이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게 되었다.”<sup>38)</sup> 웨슬리는 인간이 타락한 육체로 이 세상에서 살 때 불가피하게 질병으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네가 흠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의 말씀처럼, 노동을 통하여 빵을 먹는 존재가 되었다고 설명한다.<sup>39)</sup>

웨슬리는 성경의 본문을 강조하여 인간이 “땅의 빵과 약초”를 먹게 되었다는 우회적인 표현을 통하여 인간이 자연의 환경 속에서 약초와 같은 치료제를 발견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종교와 의학이 같이 발전하게 된 동기가 된다고 보고 있다.<sup>40)</sup>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은 스스로 치유의 방법을 알 수 있었지만, 타락한 후에는 치료제와 의사를 필요로 하게 되었고, 의학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의학적 실험을 통하여 치료의 효능을 개선하게 되었다.<sup>41)</sup> 그 전문성이 의사들의 몫이 되어가는 시대적 추이에 대하여 웨슬리는 간파하면서도, 치료 과정을 평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전문 분야가 되어가는 점에 대하여서는 안타까운 입장에서 있음을 보게 된다.<sup>42)</sup> “상식을 가진 사람은 누구든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에게나 또는 이웃에게 처방을 내려줄 수 있다면, 그리고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에서라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

에 나오는 페이지를 기입함을 밝힌다. 참고로 “primitive”는 영어의미로 원시, 초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지만, 웨슬리가 이 책의 부제로 “대다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쉽고 자연적인 방법(Easy and Natural Method of Curing Most Disease)”으로 하였기에 ‘기초’라는 의미가 더 적절하다고 본다. 웨슬리가 288종의 내용에 대한 치료 방법을 소개한 것은 1847년 판을 기준으로 하였음을 밝힌다.

38) 위의 책, i.

39) 위의 책, I. 성경 출처는 없지만, 필자가 확인하여 볼 때 “창 3:19”이다.

40) 위의 책, i-ii. 웨슬리는 ‘빵’으로 ‘bread’를, 그리고 ‘약초’로는 ‘herb’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41) John Wesley, “On the Education of Children,”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906.

42) John Wesley, *Primitive Physic*, iii.

그런 평이한 의학적 지식이 필요하다고 웨슬리는 본 것이다.<sup>43)</sup>

웨슬리는 자신의 책을 평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면서 기본적으로 일상에서 하여야 할 건강관리에 대하여 체니 박사(Dr. Cheney)의 치료방식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조언한다.

먹는 음식물이나 또는 삶의 방식에 최선을 다하여 꼼꼼하게 항상 주의하여 주십시오. 모든 절인식품, 양념이 많이 들어간 음식물을 멀리 하십시오. 소박한 음식, 소화가 잘되는 음식을 드세요. 할 수 있는 한 자주 하시고 편하게 용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하십시오. 위에 문제가 없다면 오직 물만 드시고,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약간의 맥주를 드십시오. 피곤하지 않도록 하면서 야외에서 가능한 한 매일 충분히 운동하십시오. 아주 간단하게 여섯 번 내지 일곱 번 음식을 먹고 취침과 기상을 규칙적으로 하십시오. 위와 같은 권고사항을 꾸준히 따르면 대개 절반 이상은 치료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래된 구식 치료제인 “기도”를 더하십시오(이렇게 한다고 손해 볼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물에 내리케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sup>44)</sup>

웨슬리가 일반 평민들도 이해하기 쉽게 권고한 내용들을 정리하여 보면, 섭생을 중시하고 아울러 운동에 대하여 매우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된다. 현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웨슬리의 지침을 따르면 다이어트에 아주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주목할 점들은 운동을 할 때는 공복이 좋으며, 과도하게 피곤할 때까지 운동하지 말고, 운동 후 체온 조절에 신경 쓰고, 때밀이 술을 이용하여 목욕하는 것도 좋은 운동이 되고, 맵고 짠 음식을 피하고 냉욕을

43) 위의 책, iii.

44) 위의 책, v. 위의 번역 내용은 1747년 6월 11일 자로 되어 있는 웨슬리의 “기초의학” 서문의 내용이며, 웨슬리는 자신이 소개하는 내용은 대부분 체니(Cheyne) 박사의 책에서 주로 옮겨온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참고로 번역의 마지막 부분 성경 본문 출처는 필자가 볼 때 “사무엘상 2:6”이다. 웨슬리는 본문을 “killed and maketh alive, who bringeth down to the grave and bringeth up.”을 사용하였다.

권장하며, 변비에 주의하고 특히 감기가 만병의 근원이 되므로 몸을 따뜻하게 하여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다.<sup>45)</sup>

웨슬리는 위와 같은 기본적인 건강관리에 유의하도록 강조하면서도 그 근본 원인이 인간의 무절제한 정욕임을 지적하면서 결국 이것이 인간이 극복하여야 할 문제임을 간과하지 말 것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질병의 궁극적인 치료가 되며, 믿음을 통한 마음의 평화가 건강에 가장 중요하다고 권고한다.<sup>46)</sup>

웨슬리는 또한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의 영문 원본 1747년 4판에 붙인 1755년 10월 16일 자 ‘추신’에서 자신이 왜 이 책에 공을 들였는지에 대하여 다시 보충적으로 설명한다. 웨슬리는 의사들의 전문적인 처방이 중요하지만, 여전히 평민들이나 문맹자들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일상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민간처방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는데, “공기, 물, 우유, 유청, 꿀, 당밀, 소금, 식초, 일반적인 영국 약초를 싼값에 안전하고 많이 사용하는 여러 외국 약품들”과 함께 사용하기를 권하였다.<sup>47)</sup> 이러한 그의 노력은 그 자신도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몸에 좋은 것을 일반인들에게 당연히 권한 것이며, 기독교적 황금률을 이루기 위한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치료받을 때 전문적인 의학적 지식을 가진 의사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의사를 찾아가도록 권하였다.<sup>48)</sup>

웨슬리는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의 영문 원본 1747년 이후 4판에 붙인 1760년 11월 10일 ‘추신’에서는 “시도함(Tried)”이라는 단어를 본문

45) 위의 책, vi.

46) 위의 책, vi.

47) 위의 책, vii. 1747년 4판에 붙인 1755년 10월 16일 자 웨슬리의 ‘추신’. 참고로 ‘유청’은 우유가 응고할 때 생기는 액이라고 한다. “유청,”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유청\\_\(음식\)](https://ko.wikipedia.org/wiki/유청_(음식))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48) 위의 책, vii. 1747년 4판에 붙인 1755년 10월 16일 자 웨슬리의 ‘추신’.

중 처방 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에 122건이나 추가한 이유를 설명하는데, 이 경우 자신이 직접 시도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주었다.<sup>49)</sup> 아울러 이 추신에는 웨슬리가 그 어떤 치료제보다도 탁월하다고 확신하고 있었던 ‘전기(electricity)’ 요법에 대하여 강조하고 있는데, 그는 전기를 이용한 치료가 머지않아 세상에서 일반화될 것이라고 보았다.<sup>50)</sup>

당시 의료수준은 현대의 관점에서 보면 매우 낮아서 치명적일 수 있는 수은증류제가 20여 종의 질병 치료제로 사용되기도 하였는데, 웨슬리는 그러한 의료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하여 수은제로 치료할 것이라면, 차라리 교수형이나 총살로 죽게 하는 것이 대안이 되지 않겠냐고 우회적으로 비판한다.<sup>51)</sup> 심지어 “액화(liquid fire)”가 당시에 “술(drams)”이나 “증류주(spirituous liquor)”로 불리기도 하였는데, 이를 부주의하게 사람들에게 파는 당시의 행태에 대하여 웨슬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의 몸을 훼손하는 것으로 보았다.<sup>52)</sup>

웨슬리는 인간을 근본적으로 연민의 마음을 가지고 이해하였기 때문에, 정신의학적인 분야까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웨슬리 저널(The Journal of John Wesley)”의 “쓸모없는 의사들(Useless Doctors)”에 관한 1759년 5월 12일(토) 내용을 보면, 위장병에 걸린 여성이 그 질병의 원인조차 모르고 치료하는 의사들에 의하여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내

49) 위의 책, vii. 1747년 4판에 붙인 1760년 11월 10일 자 웨슬리의 ‘추신’.

50) 위의 책, viii. 1747년 4판에 붙인 1760년 11월 10일 자 웨슬리의 ‘추신’. 웨슬리가 전기치료를 효과가 있다는 주장은 “웨슬리 저널(The Journal of John Wesley)” 1756년 9월 9일(목) 일지와 1768년 1월 2일(토) 일지에도 설명되어 있다. John Wesley, “Wesely on Electricity as a Cure,” 233, “Wesley in the Marshalsea Prison,” 319. 참고로 일지의 소재명은 편집자의 제목을 인용함을 밝힌다. <http://www.ccel.org/ccel/wesley/journal.html>. *The Journal of John Wesley*, 4.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51) John Wesley, “The Speaking Statue Again,” *The Journal of John Wesley*, 371. Monday, June, 14, 1773.

52) John Wesley, “The Use of Money,”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516.

용이 나온다.<sup>53)</sup> 웨슬리는 이 여성의 경우 아들의 죽음으로 야기된 정신적인 불안이 위장병의 원인이라고 보았는데, 그런 상황에서 목사의 조력이 필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의사들은 이러한 점을 모르고 마구 처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sup>54)</sup> 목양의 마음을 가지고 인간을 이해하려고 한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웨슬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인간의 정신 작용을 깊게 이해하고 있었던 웨슬리는 “방황하는 생각들(wandering thought)”이라는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하는 영적 측면을 강조하면서도 인간의 생각 속에 떠오르는 무수한 상념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하여 깊이 고민한 흔적을 보여준다. 인간의 생각이 방황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 주된 원인이며, 육체에 속한 인간의 본성은 초점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다. 웨슬리는 죄된 인간 육체의 한계를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정신적 문제들 그 자체는 죄가 아니라고 보았다.<sup>55)</sup> 예를 들어 뇌에 문제가 발생하여 정신착란에 의하여 저질러지는 잘못된 판단과 행위는 혈관 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육체를 가진 인간이 피할 수 없는 것이다.<sup>56)</sup> 웨슬리는 인간의 육체적 한계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구하면서 동시에 그러한 육체의 상태를 “이해(understanding)”하기를 촉구한다.<sup>57)</sup> 따라서 육체와 영의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은총에 거하기를 간구한다.<sup>58)</sup>

지금까지 필자는 웨슬리의 설교를 통하여 그가 중시한 ‘이성’의 역할과

53) John Wesley, “Useless Doctors,” *The Journal of John Wesley*, 246.

54) 위의 책, 146.

55) John Wesley, “Wandering Thought,”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436.

56) 위의 책, 437.

57) 위의 책, 439.

58) 위의 책, 439-440.



연관하여 당시 ‘의학’에 관한 관점들을 살펴보았다. 의사가 아니면서도 시대적 이성의 도전과 발전에 민감하였으며,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전인적 치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본다. 이제 다음에서 웨슬리가 앞장 섰던 질병치료와 연관하여 당시 의사들과 논쟁이 붙었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V. 신앙과 이성

지금까지 필자는 “웨슬리 저널(The Journal of John Wesley)”과 “설교(Sermons on Several Occasions)”, 그리고 “기초의학(Primitive Ethic)”을 중심으로 목회자이면서도 이성적 사고의 균형을 잃지 않고 신학적인 성찰과 건강에 관심을 기울였던 웨슬리의 삶을 살펴보았다. 이성의 역할에 대하여 신앙과의 조화를 도모하였고, 심지어 기초의학에 관한 지식을 탐구하여 대중에게 도움이 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한 모습을 보게 된다.

18세기 영국에서는 “의사(physicians), 외과의사(surgeons), 약종상(apothecaries) 등 3가지 의료인이 집단적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교육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하였다.”<sup>59)</sup>고 한다. 당시 영국은 “왕립의사협회(Royal College of Physician)”에 소속된 의사들이 진료의 권한이 있었으며, 약종상들도 임상적인 경험을 통하여 치료할 수 있었다.<sup>60)</sup> 그러나 당시 약종상들은 “합리주의자(rationalist)에 대립되는 말로

59) 김옥주, “서양 근대 이후의 의사의 정체성,” 醫史學 제14권 제1호(통권 제26호) 2005년 6월. 大韓醫史學會, 52. <https://www.medhist.or.kr/upload/pdf/kjmh-14-1-51.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60) 위의 책, 52-53.

서 ‘돌팔이의사(quack)’와 ‘경험에 의존하는 의사(empiric)’”로 폄하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1)</sup> 이와 같은 당시의 영국의 의료체계를 볼 때, 정규의사들의 난해한 이론들이 대중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이제 살펴보겠지만 웨슬리도 ‘돌팔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쉽고 평이한 말로 자신이 직접 “기초의학”을 집필하게 되었다. 성실한 목회자로서 의학적 관심이 웨슬리에게 높았던 것은 전적으로 영혼 구원에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와 영혼이 전인적으로 결합되어 건강한 육체와 거룩한 영성이 강조되는 것은 마치 동전의 양면으로 웨슬리에게 여겨진 것 같다.

웨슬리가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을 출판한 후 본문에 있는 단어 하나 때문에 웨슬리와 의사들 간에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다. 1747년 초판이 나온 이후 20편이 넘게 책이 출판되었던 1775년 말부터 1776년까지 약 2년여에 걸쳐 웨슬리와 그리고 웨슬리를 공격한 미상의 인물들을 포함한 윌리엄 하위스(William Hawes)와 논쟁이 붙었다.<sup>62)</sup>

논쟁의 핵심은 1747년 “기초의학(Primitive Physic)” 초판에서 “중독되었을 때의 처방”에 관하여 웨슬리는 증류된 ‘녹청’<sup>63)</sup>을 먹여 토하게 하는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때 녹청의 양을 “한 드램 내지 두 드램(one or two drams)”을 마셔야 한다고 기입하였다.<sup>64)</sup> 당시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61) 위의 책, 53.

62) 이 논쟁에 관한 영문자료의 제목은 다음과 같다.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Letters and Reviews from December 1775 through August 1776.” (이하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로 한다) 이 자료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https://divinity.duke.edu/sites/divinity.duke.edu/files/documents/cswt/Primitive\\_Physick\\_Debate\\_%281776%29.pdf](https://divinity.duke.edu/sites/divinity.duke.edu/files/documents/cswt/Primitive_Physick_Debate_%281776%29.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참고로 윌리엄 하위스(William Hawes)는 위 본문의 문제점 외 여러 내용을 후에 지적하지만 필자는 그 내용에 대한 분석은 생략한다.

63) 참고) “구리를 대기 중에 노출 시키면 점차 공기 중의 수분과 이산화탄소와의 작용으로 생기는 녹색의 막이 형성된다. 이 녹청은 염기성 탄산구리[CuCO<sub>3</sub> · Cu(OH)<sub>2</sub>]로 형성되며 유독하다.”고 한다. “녹청,”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153XXXXXX1232>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64) 참고) “상형에서는 1.772g(1/16온스, 27.34375그레인), 약용형량체계에서는 3.888g(1/8

평민들은 ‘비소(arsenic)’, ‘아편(opium)’, ‘수은(mercury)’ 등을 용법 이상으로 사용하여 그 독성분으로 생명에 위협을 받았는데, 웨슬리는 비소에 중독되었을 때 ‘드램(dram)’의 용량으로 처방을 권한 것이 논쟁의 불씨가 되었다.<sup>65)</sup>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이 나온지 1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해독제(Antidote)’, ‘파리채(Fly-Flap)’, ‘시민(Civis)’, ‘진리의 친구(A Friend to Truth)’, ‘XXX’, ‘대중의 박수(Public Applause)’, 그리고 ‘발목(Talus)’ 등의 가명을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는데, 그 이유는 해독제에 사용하는 녹청의 경우, 드램(dram)의 단위가 아니라 “한두 그레인(grain)”<sup>66)</sup>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sup>67)</sup> ‘해독제(Antidote)’라는 가명인은 웨슬리의 회중을 염려하는 투로 2 드램을 먹게 될 경우, 그 정도의 양으로도 20-30명의 사람을 중독시킬 수 있는 엄청난 치사량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sup>68)</sup> 웨슬리는 이러한 지적을 받고 이후 가명의 ‘해독제(Antidote)’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적하여 주어서 고맙다는 인사와 함께 녹청의 용량이 드램(dram)으로 기입된 것은 출판사의 단순한 실수로서 독자들이

---

온스, 60그레인)에 해당한다. 또한 액량 드램은 3.7mL(1/8 액량 온스)와 같다. 영국에서는 강장제나 흥분제 혹은 술 1회분을 나타낼 때 쓰인다. 따라서 드램-하우스 또는 드램-숍이라고 하면 드램 단위로 술을 파는 술집을 가리킨다.” “드램,”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5d2283a>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65) John Wesley, *Primitive Physic*, “177, To One Poisoned,” 39.

66) 참고) “1그레인은 0.065g, 가장 오래되고 가장 작은 무게단위인 그레인온 상용·약용 형태, 트로이식 형량에서 항상 같은 값을 갖는다.” “그레인,” 「Daum 백과」, <https://100.daum.net/encyclopedia/view/b02g3720a>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67)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1. 페이지 명기는 pdf 자료 원본에 나와 있는 페이지를 표기하였다. 이하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본문에 있는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Antidote (pseudonym) [1], “To the Rev. John Wesley, M.A.” *The Gazetteer and New Daily Advertiser* (December 25, 1775), p.

68) 위의 책, 1. ‘해독제(Antidote)’라는 가명의 투서인은 자신이 웨슬리의 “기초의학(Primitive Physic)” 16판을 보고 서한을 보내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16판까지 나왔으면 거의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팔렸을 텐데 그 결과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에 대하여 강하게 질책하고 있다.

‘그레인(grain)’으로 고쳐주기를 바란다고 간곡하게 부탁한다.<sup>69)</sup>

웨슬리의 사과로 논쟁이 끝난 것이 아니다. 이후 가명의 ‘파리채(Fly-Flap)’는 웨슬리의 처신은 교묘한 둘러대기이며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가지고 장난치는” “감정도 없는 ‘돌팔이(Quack)’”라고 힐난하며, 당시의 무지한 사람들에게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을 20-30판 가까이 거듭 출판한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잘못된 것을 인쇄소의 실수로 치부하는 것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난한다.<sup>70)</sup>

‘시민(Civis)’의 가명은 웨슬리에게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려면 즉각적으로 진정한 고백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면서, 웨슬리의 행동은 뻔뻔하다고 지적하고 수십 판이 넘게 출판되기까지 오타가 난 것을 무시하고 그 책임을 인쇄소에게 전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에, 영국 일간지에 잘못된 내용을 ‘수정표(erratum)’로 반복해서 충분히 알리는 것이 어떠한지 양심에 호소한다고 비판한다.<sup>71)</sup> 심지어 회개를 선포한다면, 자신부터 더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이 대중이 직면한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고 훈계한다.<sup>72)</sup>

웨슬리의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에 나오는 처방 내용에 대하여 비판을 더하는 비난이 계속 이어지자 웨슬리는 자신이 위의 책을 내기까지 로버트 보일(Robert Boyle), 존 테넨트(John Tennent), 조지 체니(George

69) 위의 책, 3.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본문의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Wesley's reply to Antidote [1] (28 Dec. 1775). "To the Printer of the Gazetteer." *The Gazetteer and New Daily Advertiser* (1 Jan. 1776), 2. Dec. 28, 1775.

70) 위의 책, 4.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본문에 나와 있는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Fly-Flap (pseudonym). "To the Rev. Mr. Wesley." (1 Jan. 1776) *The Gazetteer and New Daily Advertiser* (Thursday, January 4, 1776), 2.

71) 위의 책, 5.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본문의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Civis (pseudonym). "To the Rev. Mr. Wesley" (2 Jan. 1776) *The Gazetteer and New Daily Advertiser* (Thursday, January 4, 1776), 1-2.

72) 위의 책, 5.

Cheney), 토마스 도버(Thomas Dover), 그리고 토마스 시든햄(Thomas Sydenham)과 같은 사람들의 책들을 접하고, 그리고 조언을 통하여 책을 출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73)</sup> 그러면서 한 서한을 통하여서는 “50년 전에 저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확신하건데 아는 것이 너무 없습니다. 내면의 소리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가르쳐주소서.’”라고 정리한다.<sup>74)</sup>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판의 시기에 “웨슬리 저널(The Journal of John Wesley)” 원판(original edition)을 살펴보면, 웨슬리가 위의 논쟁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미루어 헤아릴 수 있다.<sup>75)</sup> 웨슬리가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난에 대하여 서한으로 응대한 날짜는 논쟁 원본에 의하면, 각각 1775년 12월 28일, 1776년 1월 25일, 1776년 1월 30일, 1776년 7월 20일, 그리고 1776년 7월 24일이다.<sup>76)</sup> “웨슬리 저널(The Journal of John Wesley)”에 웨슬리의 일과가 소개되어 있는데, 먼저 1775년 12월 28일 논쟁의 답장 전후에 기록된 12월 21일에 웨슬리는 라틴어로 된 시들을

73) 위의 책, 12.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본문의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John Wesley. “To the Editor of Lloyd’s Evening Post.” Lloyd’s Evening Post, And British Chronicle (26–29 Jan. 1776), 102.

74) 위의 책, 13.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본문의 인용 출처는 다음과 같다. John Wesley. “To the Editor of Lloyd’s Evening Post.” Lloyd’s Evening Post, And British Chronicle (26–29 Jan. 1776), 102. 이후 웨슬리의 “기초의학(Primitive Physic)”에 대한 비판은 의학적인 관점에서 조목조목 이루어지지만, 필자는 여기서 논쟁에 대한 것은 생략하기로 한다. 참고로 위의 영어 자료는 총 20여 공개서한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 웨슬리의 답장은 총 5통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의 사이트를 참고하시오.

75) 필자는 이 논문에서 두 종류의 웨슬리 저널을 인용하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자료는 앞에서 인용한 자료, 파커(Percy Livingstone Parker)의 “웨슬리 저널” 요약본이 아닌 웨슬리 저널 전문이 실려 있는 자료로서 그 출처는 다음과 같다. *THE COMPLETE WORKS OF JOHN WESLEY: Commentary, Sermons & Other Writings*. <http://www.godrules.net/library/wesley/wesley.htm>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참고로 출처 페이지 인용은 참고 저널 자료가 페이지가 없는 ‘plain text’이기 때문에 생략하며, 대신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웨슬리의 저널 해당 연도와 날짜를 추적하여 검색하면 관계 자료를 찾을 수 있다.

76) 웨슬리 서한의 기록 일자는 전적으로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에 기입된 내용에 근거함을 밝힌다.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3, 12, 14, 26, 30.

번역하여 가다듬고 있었으며, 특히 포퓰(Pope)의 시에 심취하여 있었다.<sup>77)</sup> 또한 1776년 1월 2일에는 친척의 장례식에 참석한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때, 기도와 묵회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78)</sup> 1776년 1월 25일과 30일 답장을 한 날 전후에는 웨슬리가 1735년 방문하였던 롬바르트 거리(Lombard-Street)의 “얼 할로우스(All-hallows)” 교회에 28일 주일에 참석하여 말씀을 전하였다는 내용이 나온다.<sup>79)</sup> 1776년 7월 20일과 24일 전후에 웨슬리의 일정을 파악할 수 있는데, 그는 19일에는 파운더리(Foundery)에서의 회의에 참석하였으며, 24일에는 제니스(Jenyns)의 소책자 “기독교 종교의 내적 증거(Internal Evidence of the Christian Religion)”를 탐구하면서, 책은 훌륭하지만 성격이 모호하여 다소 실망한 감정을 표하면서, 성경의 전적인 권위의 중요성에 대하여 강조한다.<sup>80)</sup>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볼 때, 웨슬리는 ‘기초의학’과 연관된 논쟁에 관하여 크게 개의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소 방어적인 입장이었지만 시대적 의학의 한계에 대하여서 알고 있었으며, 의사가 아님에도 오로지 대중들이 일상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재료들을 가지고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러한 일을 자신의 소명으로 확신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는 도구로서 최선을 다하였다. 웨슬리는 그의 회중과 영국 사회에 혁명적인 모습을 띠지는 않았지만, 위의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앙과 이성을 조화롭게 하면서 복음에 매진하였다. ‘돌팔이’나 ‘파리’와 같은 조롱을 받으면서도 웨슬리는 전혀 흔들리지 않고 세상에 살피 세상을 초월한 믿음으로 이것을 잘 극복하였다고 본다.

---

77) *THE COMPLETE WORKS OF JOHN WESLEY: Commentary, Sermons & Other Writings.*

78) 위의 책.

79) 위의 책.

80) 위의 책.

지금까지 필자는 웨슬리 저널과 그의 설교문, 그리고 웨슬리의 ‘기초의 학’에 둘러싼 논쟁들을 차례로 살펴보면서, 웨슬리의 시대적 이성과 목회자로서의 신앙의 모습을 정리하여 보았다. 이 장에서 살펴본 논쟁의 내용을 보면, 목회자로서 여론의 질타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그 중심을 잃지 않고 목회에 전념한 웨슬리의 모습을 떠올리게 된다. 물론 필자가 살펴본 자료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속단할 수 없지만, 웨슬리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 전반에 그의 신앙과 이성의 전인적인 조화를 충분히 감지할 수 있다고 본다. 이제 다음에서 코로나19시대의 기독교윤리를 웨슬리적 관점에서 정리하여 보자.

## V. 결론

지금까지 필자는 웨슬리의 신학과 신앙, 그리고 삶에서 나타나는 이성의 역할에 대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토대로 코로나19 시대의 기독교윤리의 역할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웨슬리적 관점에서 필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차례로 코로나19 시대의 신앙, 과학적 이성과 생명, 그리고 교회의 공공성에 관한 것이다.

첫째, 코로나19 시대에 시대적 이성은 철저하게 과학(science)과 사실(fact)에 근거하여 코로나 질병을 어떻게 극복할지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웨슬리적 기독교윤리는 과학적 연구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대응 방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물론 국내 외적으로 코로나19 퇴치를 놓고 정치적 당리당략의 이해관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강조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나 철저한 공중보건, 검사와 추적, 격리를 통한 질병의 통제, 그리고 치료제에 대한

정보의 교류는 과학이나 정치, 그리고 종교와 상관없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고 본다.

웨슬리는 설교와 ‘기초의학’과 그의 저널을 통하여서 자신의 건강과 공중보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그리고 대중들의 질병치료 선봉에 서 있었다. 설교와 치료는 늘 함께 있었다. 설교에도 영적 구원과 육체적 치유는 늘 웨슬리에게 균형을 잃지 않았다. 교회는 교회를 위하여 있지 않고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존재하였다. 이는 감리교 정신의 근간이기도 하며, 인간을 전인적으로 보는 건강한 신앙관이라고 본다. 따라서 코로나19 시대의 웨슬리적 기독교윤리는 과학을 비롯한 의학적 발견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기독교 공동체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간 학문적 노력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라고 본다.

둘째, 시대적으로 과학이나 의학이 아무리 발전한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가 반드시 인간에게 유익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이런 맥락에서 웨슬리적 기독교윤리는 과학의 시대에 그 결과물에 종속되지 말고, 인간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복음의 사명을 더 강조하여야 한다고 본다. 우리는 역사 속에서 과학이 인간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기가 된 경험을 수없이 하였으며, 과학자 집단이 증상주의와 연관되면 인간의 생명은 단지 과학적 발견물을 소비하는 도구로 전락이 된다.

웨슬리가 ‘기초의학’이라는 소책자를 출판한 이유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의 생명 구원을 최우선으로 하였기 때문이다. 영혼이 육체와 결합되어 있는 한, 그리고 그 영혼이 온전한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육체적 안위는 함께 고려되어야 할 믿음의 도구였다. 왜냐하면 건강한 몸을 통하여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교회가 과학을 앞세운 관료주의나 정책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학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 즉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복음 전파를 위하여 더 최



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Martin Luther)는 “치명적인 역병으로부터 도망쳐야 하는가?(Whether one may flee from a deadly plague)”라는 편지를 통하여 자신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심각한 뇌빈혈로 고통을 당하던 상황에서 아래와 같은 믿음의 글을 썼다.

나는 하나님께 자비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간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소독하고 공기를 정화하도록 돕고, 의약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겠고, 그리고 약을 먹겠습니다. 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모임이나 사람들과는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야 내 부주의로 말미암아 오염을 막고,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어 죽음에 이르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기 원하신다면 그분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 죽음이나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하여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어디든 누구든지 만나러 달려가겠습니다.<sup>81)</sup>

위와 같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의 정신이 웨슬리에게서도 발견이 된다. ‘기초의학’을 통하여 웨슬리는 실수(?)로 지탄을 받아야만 했다. 그런데도 그는 평생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중의 치료와 복음을 위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였다. 논쟁이 된 부분을 출판사를 통하여 교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하기를 구한 웨슬리의 모습을 통하여 이성의 교만에 굴복하지 않고 무릎을 꿇는 구도자의 모습을 보게 된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81) Martin Luther, *Luther's Works*, Vol. 43: Devotional Writings II, ed. Jaroslav Jan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9), 119-38. 참고로 위 번역의 인용 페이지는 ‘plain text’이기 때문에 생략한다. 루터가 뇌빈혈로 어려움을 겪는 내용은 위 원본을 인용하는 주석 ‘1)’에 있는 내용임을 밝힌다. <https://blogs.lcms.org/wp-content/uploads/2020/03/Plague-blogLW.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외부의 비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명에 관한 것이었다.

셋째, 코로나19 시대의 웨슬리적 기독교윤리는 공공신학의 강조에 있다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신학과 신앙이 자칫 통속적이며 허구적 관념으로 비쳐질 수 있는 과학적 이성의 시대에 교회와 기독교인의 책무는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웨슬리의 감리교 운동은 비록 영적 구원이 그 목표이면서도 결코 개인주의나 정적주의로 흐르지 아니하였다.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정욕과 거리두기’로, ‘방역’을 ‘복음의 전신갑주’로, ‘과학’과 ‘사실’을 ‘영성’으로, ‘검사’를 ‘회개’로, ‘추적’을 ‘자기 성찰’로, 그리고 ‘격리’를 ‘기도’로 승화하여야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에 창궐하는 질병의 시대에 웨슬리처럼 우리는 이성과 신앙의 조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이성과의 대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더 깨끗한 자연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공공신학의 책무는 그 어느 때 보다도 웨슬리적 감리교 신학이 감당하여야 할 귀한 책무일 것이다.

## 참고문헌

- 김옥주. “서양 근대 이후의 의사의 정체성.” 『醫史學』, 제14권 제1호(통권 제26호) 2005년 6월. 大韓醫史學會, 52. <https://www.medhist.or.kr/upload/pdf/kjmh-14-1-51.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 Luther, Martin. *Luther's Works*, Vol. 43: Devotional Writings II, Edited by Jaroslav Jan Pelikan, Hilton C. Oswald, and Helmut T. Lehmann, vol. 43 Philadelphia: Fortress Press, 1999, 119-38. <https://blogs.lcms.org/wp-content/uploads/2020/03/Plague-blogLW.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 Outler, Albert C. “The Wesleyan Quadrilateral-in John Wesley.” *Wesleyan Theological Journal* 20, no. 1 (Spring 1985), 16-17. [https://wtsociety.com/files/wts\\_journal/1985-wtj-20-1.pdf](https://wtsociety.com/files/wts_journal/1985-wtj-20-1.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 Wesley, John. “THE COMPLETE WORKS OF JOHN WESLEY: Commentary, Sermons & Other Writings.” <http://www.godrules.net/library/wesley/wesley.html>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 \_\_\_\_\_. “The Journal of John Wesley.” <http://www.ccel.org/ccel/wesley/journal.html>.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 \_\_\_\_\_. “Sermons on Several Occasions.” Christian Classics Ethereal Library, <https://ccel.org/ccel/wesley/sermons>. (최종 접속: 2020년 4월 30일).
- “THE PRIMITIVE PHYSIC CONTROVERSY: Letters and Reviews from December 1775 through August 1776.” [https://divinity.duke.edu/sites/divinity.duke.edu/files/documents/cswt/Primitive\\_Physick\\_Debate\\_%281776%29.pdf](https://divinity.duke.edu/sites/divinity.duke.edu/files/documents/cswt/Primitive_Physick_Debate_%281776%29.pdf) (최종 접속: 2020년 4월 28일).

**Abstract**

**Wesleyan Christian Ethics in the Age of Covid-19**

Kyoung-dong Yoo, Ph. D.

Department of Christian Ethics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Recently, a significant transition occurred in the Christian worldview due to the Coronavirus disease 2019 (hereafter Covid-19). Most of all, as most of the church began to worship online due to the government's public health policy that emphasized social distancing, there was a considerable shift in the traditional worship form of gathering together for the service in a building. Therefore, when the church that emphasizes the value of faith through worship viewed the government's policy that limited public gathering for the prevention of epidemics, conflict was inevitable. However, since the church's public responsibility that promotes social order cannot be overlooked, the church's obligations following the government policy could not also be ignored.

The issue of the government's public health and the church's religious actions was often interpreted from th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reason and faith. The conflict which the church experienced concerning the Covid-19 situation, can be attributed to the issue where worship service was retracted by the restrictive measures, even though the freedom of religion is clearly stated in the constitution.

However, when the worship service also became the subject of recommendation not to gather because of social distancing, due to the nature of this disease that spreads through the contact between humans, the response to the recommendation had to be contemplated. This is because, when perceived from the aspect of the conflict between the reason and the faith, continuing worship service by emphasizing faith in God, in opposition to the medical approach based on science and fact, could cause division in the society and considered as anti-intellectualism.

The author attempts to reflect on the proper harmony of faith and reason through Covid-19 situation in this paper. It seems especially meaningful to examine the perspectives of John Wesley, the founder of the Methodist Church, through Wesley's thoughts, on the disease of his era, The author will develop the thesis through three subsidiary themes in this paper. They are the role of reason emphasized by Wesley, his perspectives on the holistic healing with regards to disease, and the Christianity's role and the intellectual responsibility in the age of Covid-19 based on those reflections. Through this thesis, the author will attempt to emphasize the public theology's responsibility of Christianity.

**[Key Words]**

Coronavirus 19, Wesleyan Christian Ethics, Public Theology, Science and Religion, Reason and Faith